

순천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조성 박차

인재양성·정주환경 개선 등 사업 확대 복지 정책 활용 교육 사각지대 해소도

순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에 발맞춰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섰다.

시는 지역 기반 교육과정 확대와 학습환경 개선, 촌촌형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8년까지 5년간 총 298억원을 투입해 순천형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핵심 전략은 지

역 기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이다.

대표 사업으로는 지역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교육과정'이 있다. 에니메이션·웹툰 분야 진로 탐색, 지역 대학 및 기업 연계 체험,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육성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있다.

순천만을 활용한 '기후변화와 순천만' 교육과정은 체험·탐구 중심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내고장 순천 바로알기', '미래정원사 양성교육', '순천형 독서



미래정원사 양성교육에 참가한 순천지역 초등학생들이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정원문화를 접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인문교육', '특성화고-대학이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인재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시는 '엄마들 돌봄교실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학교 공간 개선 사업'으로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있

다. 아울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마을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지구를 구하는 실천 행동 및 마을개선 정책을 제안하는 '학생 자치 특색프로그램', 마을배움터 등을 지원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의 순천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 학교 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지원이 강화된다. 시는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10만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 지원사

업'을 통해 34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11만7000원, 중·고등학생 14만3000원을 지원하는 '교육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교육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도 돕고 있다.

이밖에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위기학생 관리,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 저소득층 교육급여 등 촌촌형 복지 정책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교육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장흥, 배수펌프장 현장 점검 집중호우 대비 대응체계 강화

장흥군은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로 인해 단시간 강우량이 증가하는 등 재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배수시설의 사전 점검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영환 장흥군수 권한대행은 배수펌프장 현장 점검을 직접 방문해 펌프 작동 상태와 제어실비 정상 여부, 비상발전기 관리 상태, 배수로 정비 상황 등 주요 시설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비상 상황을 가정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확인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노영환 장흥군수 권한대행은 최근 배수펌프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펌프 작동 상태와 제어실비 정상 여부, 비상발전기 관리 상태, 배수로 정비 상황 등 주요 시설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장흥군청

광양 별빛야영장 바닥분수 가동

광양시는 지난 3월 개장한 배알도 별빛야영장의 체험시설인 바닥분수와 증발냉방장치(쿨링포그)를 지난 20일부터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 가동은 최근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날이 이어지고, 시설 가동을 요청하는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추진됐다.

바닥분수와 증발냉방장치는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되며, 펌프 과열을 막기 위해 1시간 가동 후 30분 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바닥분수와 증발냉방장치를 가동해 야영장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봄·여름철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배알도 별빛야영장은 자연 속에서 휴식과 야외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이용 수요를 반영해 체험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알도 별빛야영장은 섬진강과 남해가 맞닿은 자연경관 속에 조성된 체류형 관광시설이다. 카라반과 캠핑사이드를 비롯해 샤워장, 커뮤니티센터, 버스킹 공연장 등 편의시설과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kn@gwangnam.co.kr

나주 공영텃밭 개장...도시농업 '활기'

텃밭 가꾸기·탄소중립 실천 여가 활동·공동체 가치 확산

나주시가 공영텃밭 개장을 통해 시민 200여 가족이 참여하는 도심형 농업 활동을 본격 시작하며 녹색생활 확산과 공동체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빛가람공원 텃밭 일원에서 '나주시 공영텃밭 개장식'을 개최하고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했다.

행사에는 텃밭 분양자와 가족, 4-H 회원 등 500여명이 참여해 청년농산물 홍보, 탄소중립 캠페인, 환경정보 활동 등을 함께 진행하며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공유했다.

나주시 공영텃밭은 시민들에게 농업 체험과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도심 속 녹색생활을 확산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올해는 빛가람공원과 봉황면 옥산 일원에서 213가족이 참여한다.

개장식에서는 재배 가이드북과 모종,



나주시가 최근 빛가람공원 텃밭 일원에서 '나주시 공영텃밭 개장식'을 개최하고 텃밭 꾸리미 배부 비를 비롯한 텃밭 가꾸기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친환경미생물제, 농기구를 배부하고 이용 수칙을 안내해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마련했다.

또 4-H 회원들이 참여해 청년 농업인 이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등 도시농업과 청년 농업을 연계하는 계기도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텃밭 주변에 봄꽃을 식재하

여수,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 현안 건의 산업위기 극복·탄소중립 전환 등 국가 차원 지원 촉구

여수시가 산업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전환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기후주간 행사 참석을 위해 여수를 방문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래 에너지산업 전환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김성환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여수국가산단의 산업구조 전환과 전남 동부권에너지 인프라 확충 필요성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저탄소·고부가 산업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과 HVDC(초고압 직류송전) 전력망(공동접속선)로 구축, 여수국가산단 CCUS 클러스터 조성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는 물론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생태탐방원 신설 필요성도 건의했다. 전남 동부권의 국립공원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 관리 체계 강화와 함께, 여수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핵심 거점이자 해양관광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기후주간 행사 참석을 위해 여수를 방문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래 에너지산업 전환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중심지인 만큼 '해양형 생태탐방원' 조성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 석유화학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산업위기지역 내 위 기업중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경감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안했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여수는 국가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지다"며 "지역의 산업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구례서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열린다

내달 2~3일 섬진아트홀...산조·병창·창창 등 14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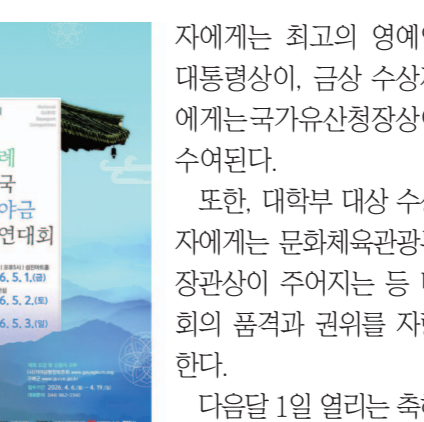
구례군은 가야금명장보존회가 주관하는 '제24회 구례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가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구례군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본 대회에 앞서 다음달 1일 오후 5시에는 섬진아트홀에서 대회 24주년을 기념하는 화려한 축하공연이 열린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의 초·중·고등부 학생들을 비롯해 신인부, 대학부, 일반부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야금 산조, 병창, 창창 등 총 14개 부문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게 되며, 참가자들은 지난 1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를 마쳤다.

특히, 이번 대회의 일부부 대상 수상



자에게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이, 금상 수상자에게는 국가유공정상이 수여된다.

또한, 대학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주어지는 등 대회의 품격과 권위를 자랑한다.

다음달 1일 열리는 축하공연은 국악인 이예영이 사회를 맡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가야금 산조와 병창은 물론, 판소리 심청가 중 방이타령, 가야금 창창 공연, 남도민요 옥자백이, 민속무용 버주춤 등 다채로운 전통 예술 무대가 펼쳐진다.

이 자리에는 역대 대회 수상자들과 구례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해 대회의 의미를 한층 더 빛낼 예정이다.

구례=이민구 기자 city@gjdream.com

고흥, 'QR코드 관광 안내' 서비스

고흥군은 스마트폰 하나로 지역 관광지의 상세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시책은 주요 명소와 관광시설 52개소를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디지털 QR'을 제작·설치해,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6개 권역별 관광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관광객들이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군 관광 홈페이지 내 해당 명소 페이지로 자동 연결돼 관광지 현황, 이용 안내, 주변 볼거리 등 상세한 정보를 바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행 동선을 고려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시설 30개소(속

고흥, 'QR코드 관광 안내' 서비스

관광시설 52곳 대상...모바일 관광 플랫폼 제공

고흥군은 스마트폰 하나로 지역 관광지의 상세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시책은 주요 명소와 관광시설 52개소를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디지털 QR'을 제작·설치해,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6개 권역별 관광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관광객들이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군 관광 홈페이지 내 해당 명소 페이지로 자동 연결돼 관광지 현황, 이용 안내, 주변 볼거리 등 상세한 정보를 바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행 동선을 고려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시설 30개소(속

박, 음식점, 카페 등)에도 QR코드를 확대 설치한다. 관광객들은 주요 명소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카페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고흥의 다양한 관광 정보를 손쉽게 접하며 다음 여행지를 계획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지역의 명소들을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연동된 스마트 안내 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방문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디지털 관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